

<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잠언>

1. 하나님도 성자도 ‘구할 마음’이 있으면, 매질을 하면서라도 끌고 가신다.
 2.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떤 자는 ‘사랑’으로 대해 주시고, 어떤 자는 ‘종’같이 부리면서 끌고 가신다.
 3. 신부 자격이 안 되면,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. 그들을 ‘나무’로 보면, 집 짓는 데 귀히 쓸 재목이 아니라 ‘땀감’으로 쓸 재목이다.
 4. 길을 낼 때 우선 급한 대로 아무렇게나 내면, 평생 그 길을 사용하며 고생한다. 그 후에 다시 길을 내려 하면, 2~3배 더 수고해야 된다. 이왕 자기를 만들 것이면, ‘신부’로 완벽히 만들어라.
 5. 세상만사 모든 것이 적당히 해서는 <최고 차원의 것>을 얻지 못한다. <천국 황금성>도 적당히 해서는 못 간다.
 6. <천국 황금성>은 ‘신’이 돼야 간다.
 7.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‘인간으로서 신’이다.
 8. <천국 황금성>은 천 리 길에 한 명도 가기 어렵다.
- 그곳은 ‘천국의 최고 위치의 성’이다. ‘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룬 대가로 주는 성’이다. ‘영원히 신부 대우를 받고 성삼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’이다.
-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우선으로 사랑하고,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여 ‘진리와 사랑의 승리’를 하여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완전히 만든 자들의 영만 갈 수 있다.
9. <황금성>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.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만 준다.
 10. 1년 내내 수고하여 농사지은 과일나무에 ‘온전한 과일’이 적게 열렸어도 ‘온전한 과일’만 거둬들인다.
 11. 이와 같이 <황금성>에 가는 영들이 적다고 해서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무에게나 <황금성>을 줄 수는 없다.
 12. 아무나 구원하고, 아무나 휴거시키고, 아무에게나 <황금성>을 준다면, 누가 성삼위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겠느냐.

13. ‘타락한 자’가 어떻게 ‘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산 자’와 같겠느냐.
14. ‘만들어지지 않은 자’가 ‘어떻게 만든 자’와 같겠느냐.
15. 똑같이 <주>를 믿고 살아도 ‘자기 삶을 중심으로 사는 자’와 ‘주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며 주의 일을 하며 사는 자’와 같겠느냐.
16. 똑같이 <주의 일>을 해도 ‘적은 조건을 세운 자’와 ‘더 많은 조건을 세운 자’가 같겠느냐.
17.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대해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.
18. <성약역사>를 따르는 자들이 적다고 해서 <저 기성>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‘신부 자격’을 줄 수 있겠느냐. 그같이 안 한다. 누구든지 <성약역사>에 와서 <성약말씀>을 듣고 <시대 보낸 자>를 100% 믿고 따르며 ‘이 시대에 맞게 행하는 자들’에게만 ‘신부 자격’을 준다.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.
19. <휴거>를 귀히 여겨라.
20. <휴거>를 무슨 휴가철에 휴가 가듯 생각하고, 공휴일에 휴식하듯 생각하느냐. 일반 사람들은 ‘휴거’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신다.
21. 하나님은 <휴거>를 모든 사람들에게 ‘의무’로 주지 않으신다. 오직 ‘새 역사에 와서 신부로 온전히 만든 자들’에게만 <휴거>를 허락하신다.
22.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휴거된다 생각하고, <휴거>를 귀히 여기고 어서 자기를 만들어라.
23. 10만 명 중에 ‘너 한 명’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라.
24. ‘자기’가 안 하면 여지없이 ‘다른 사람’에게 기회가 돌아가고, 쫓대가 옮겨져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서,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라.
25. 휴거된 자들도 휴거됐으나 휴거 안 됐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라. 그러면 <휴거 300선>을 넘어서 <천국 황금성>에 ‘자기 것’이 하나씩, 하나씩 더 만들어지고 세워진다. 이것은 사실이다!